

정례브리핑

2021.6.7.(월) 11:10, 이종주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과 관련 사업 추진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주에도 남북경협기업과 사회단체 등 다양한 민관협력 주체들과 소통하고 남북협력 추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합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번 주 수요일 6월 9일 오후 2시에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집무실에서 면담을 갖습니다.

이번 면담은 지난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종명 대한골프협회 회장 면담에 이어 금강산관광사업자 등으로부터 금강산관광사업의 발전적 정상화 등 남북관광협력 재개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1년부터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면담은 모두발언까지 공개되고 면담 후에 주요 내용에 대한 참고자료를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은 금요일인 6월 11일 오전 11시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체로 열리는 평화경작지 조성기념 모내기 행사에 참여하여 축하할 예정입니다.

평화경작지 조성사업은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지역에 위치한 군남

댐 홍수조절 부지를 평화경작지로 조성하고,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친환경 농법으로 벼를 경작한 후에 수확된 벼를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남북 간 인도적 협력으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접경지역에서 새로운 평화와 농업 환경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간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 일대에서 이러한 협력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임진강 수역에서의 홍수조절 등 자연재해 공동대응, 수자원 공동이용 등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모내기 행사는 평화경작지사업의 첫 삽을 뜨는 자리로, 정부는 이번 사업이 평화... 남북 간 평화와 협력을 기원하는 우리 농업인들의 바람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2030 세대와의 소통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2030 세대와 대화와 노래, 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통일부 장관과 2030 세대와의 토크콘서트를 열었고, 올해 4월에는 힙합 사이퍼, 뮤직비디오를 함께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세 팀의 청년예술가들이 평화를 주제로 라이브페인팅, 피아노·첼로 이중주, 국악밴드 공연 등을 준비

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통일부 UniTV 등을 통해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인 6월 8일 오후 3시에는 이번 기획에 참여한 청년 예술가들과 통일부 장관이 '평화를 속닥속닥'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토크쇼는 가수 유빈 씨와 한복 디자이너 김리을 씨가 진행하고, 평화에 대한 대화와 청년예술가들의 라이브페인팅, 악기연주, 밴드공연 등의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가 됩니다.

이외의 기타 일정으로는 6월 8일 국무회의와 6월 9일 외통위 당정 협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국관광공사와의 면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관광공사는 2001년부터 금강산관광 사업에 참여해 온 금강산관광사업자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면담은 특정한 의제를 정해 놓고 진행되기보다는 여러 남북협력사업에 참여

해 왔던 민관협력 주체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측으로부터도 금강산관광사업 추진 등에 대한 관광공사 측의 여러 입장과 의견 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질문> 아까 말씀해 주신 쌀 관련해서 이게 쌀 지원하고 자연재해 대응은 조금 결이 달라 보이는데 자연재해 대응은 어떻게 하실 복안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해당 지역에서 우리 측 농민들이 쌀 경작을 하면 그 쌀은 전부 다 북한으로 보내게 되는 건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국 정부가 그 쌀을 구매해서 북한에 보내게 될 텐데 대북제재 위반 문제는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경작지는 군남댐 홍수조절 부지에 만들어집니다. 군남댐 홍수조절 부지는 알고 계시는 대로 임진강 수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진강 일대에서의 홍수 등이 발생할 경우 남북 간에 상호 댐의 이용이라든지, 방류 문제에 대한 상호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남북 간 인도적 그리고 환경협력 차원의 협력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이와 같은 자연재해 공동대응, 다시 말씀드리어서 홍수에 대한 정보와 예보 등을 포함한 대응절차들을 진행하거나, 더 나아가서 수자원 공동이용 등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도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 농업 협력으

로, 더 나아가서 기후대응 협력 등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화경작지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서 쌀을 경작을 하게 되고요. 경작한 쌀을 민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상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관련된 사업 주체 등 간에 추가 협의 등을 통해서 더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는 대로 식량 지원 등 인도적인 협력은 대북제재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닙니다.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제재 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자원 공동 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북한이 무단 방류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평화경작지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측 농민들이 일하는 곳인데, 만일 이런 식으로 북한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무단 방류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국무부가 장관님의 금강산 세계골프선수권대회 적극 지원하시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대북제재를 강조하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부 차원에서 금강산관광 그리고 골프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도 미국과 별도의 협의 절차를 가질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산 세계골프대회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4일 이중명 대한골프협회 회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민간 측으로부터 유치제안서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막 제안서를 전달받은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체부 등 여러 유관부서와 함께 민간의 제안 내용 등을 살펴보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협력할 방안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이런 검토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 국제경기대회에 남북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의 의의를 통해서 남북 간 스포츠 교류, 한반도 평화, 국제 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 등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골프협회와 국제골프연맹 간의 협의 등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한 국제사회 협력에 필요한 부분들 또는 유관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함께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의 관련 언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관련된 논평을 보았고, 기본적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과, 역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모든 유엔 회원국들, 국제사회 각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등을 준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금강산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북제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에서 금강산관광 정상화와 골프대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 차원의 협력 제안 등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런 식의 사업들이 갖고 있는 평화적 의미 그리고 국제스포츠투대회 등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제재와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처음에 질문드렸던 무단 방류 같은 경우.

<답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남북 간에는 몇 차례 남북협의 등을 통해 공유하천, 공유하천에 위치한 댐들을 방류 시에는 사전통보 절차 등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사전통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요. 북한과의 관련된 대화 등의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군남대 홍수조절 부지에서 평화경작지사업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질문 주신 부분이 평화경작지 조성 활동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여기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위험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하는 지적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현장의 여러 유관부서 등과 협의

해서 그런 위험요인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사업 취지대로 사업
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